

[보도자료] 쿠팡, ‘2026 사회공헌 공로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 수상

2026. 9. 10.



박태량 쿠팡 사회공헌실 부장(오른쪽)이 정현곤 청년과미래 이사장으로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을 수상하고 있다

- 의료취약지역 주민 약 1,700명 건강검진 지원 장수·단양·영덕·해남 찾아 의료봉사
- 재난구호·아동·소상공인 등 지역사회 수요에 맞춘 사회공헌 활동 지속

2026. 09. 10. 서울 - 쿠팡이 인구 소멸지역을 찾아가는 의료봉사를 비롯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펼쳐온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쿠팡 사회공헌실은 지난 9일(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제10회 대한민국 청년의날 조직위원회 위촉식 및 시상식’에서 ‘사회공헌 공로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주최했다.

‘사회공헌 공로대상’은 대한민국 청년의 날을 기념해 사회공헌을 통해 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기업·단체·개인 등을 선정해 시상한다.

쿠팡은 올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쿠팡 운동네 케어’를 통해 전북 장수, 충북 단양, 경북 영덕, 전남 해남 등에서 주민 약 1,700명에게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했다. 의료진이 직접 지역을 찾아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앞으로도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봉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상생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쿠팡의 물류 인프라를 활용한 ‘긴급구호 희망박스’를 통해 올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과 경남 거제에 총 300세트의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에는 생활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섬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이미용 봉사를 위한 물품 운송 차량을 지원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춘 활동을 펼쳤다.

미래세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아동양육시설 아동들이 원하는 선물을 직접 고르면 쿠팡이 로켓배송으로 전달하는 ‘쿠팡 산타’를 통해 지난해 전국 24개 시설 아동 941명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했다. 올해에는 영남·호남지역 중소기업인 100개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점프업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온라인 판매와 디지털 마케팅 등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쿠팡 사회공헌실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지역사회와 현장에서 함께해 온 많은 분들이 힘을 모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